

법회안내

30년만에 빛낸 만해정신
남한산성 만해기념관 개관

역사적 인물로서의 만해 한운운을 연구하고 추모함과 동시에 그 정신의 확산과 새로운 기운 진작을 위해 마련된 만해기념관이 완공돼 20일 오전 11시 개관식을 갖는다.



관 관람을 통해 가슴으로 느낀 만해정신을 현장에서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추모의 장도 마련, 만해사상 선양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0312)44-3100

편하고 맵시있는 우리 옷

여러분 생활한복 바자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되살리는 생활한복 바자회를 갖는다.

서울시 지원을 받아 26일 오후 1시~9시까지 종로5가 연강홀에서 펼쳐지는 이번 바자회는 생활한복을 비롯 어린이를 위한 개량한복, 실크 누비 등으로 만든 양장식 한복과 결혼예복 등도 선보인다.



◇생활한복은 전통의 멋과 슬기를 오늘에 되살려 낸다.

외국인과 함께 녹차를...

통도사부산포교원 하동답사 마을답사를 소중히 하고 정도를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차를 즐긴다는 옛말이 있다. 차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희소식.

차 한잔에 담은 이웃사랑

길음복지관 23일 하루차집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실직, 저소득, 질병 등의 문제로 소외된 우리 이웃의 자립지원 기금 마련을 위해 23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성북구 돈암동 커피전문점 조디악에서 하루차집을 연다.

아함경 보며 세상이치 탐구

경전은 정신치로서...환자치료에 적용

승보살화라는 불교공부모임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 모임에 가입하여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선생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함·반야·법华的 삼부경 속에 체계적으로 시설되어 있다고 보았다.

를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며, 우리 문화에 낯선 외국인들과 차 문화속에 어려있는 지혜를 배우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여행이 될 것이다. (051)816-2241

법흥사식물 곤충의 세계 '맑고향기' 사찰생태기행

5월은 가정의 달. 생태계 파괴로 몸살을 앓는 우리의 자연을 온가족이 함께 만나며 불심을 더욱 돈독히 할 기회가 왔다.

맑고향기롭게(회주 법정)는 24일 영월 법흥사로 제9차 사찰환경생태기행을 떠난다. 법흥사의 아름다움을 한껏 누릴 수 있는 이번 생태기행은 잠시 곤충연구소 박해철 연구원과 경인대 조경학과 전승훈 교수가 법흥사 주변의 식물과 곤충들을 상세하게 안내해 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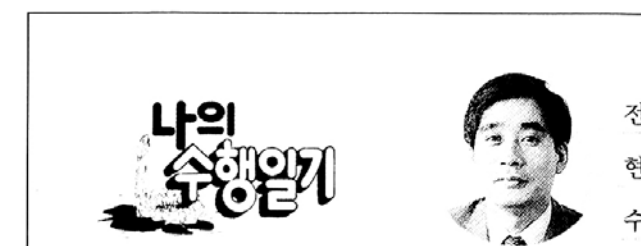
차 한잔에 담은 이웃사랑

길음복지관 23일 하루차집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실직, 저소득, 질병 등의 문제로 소외된 우리 이웃의 자립지원 기금 마련을 위해 23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성북구 돈암동 커피전문점 조디악에서 하루차집을 연다.

아함경 보며 세상이치 탐구

경전은 정신치로서...환자치료에 적용

승보살화라는 불교공부모임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 모임에 가입하여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선생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함·반야·법华的 삼부경 속에 체계적으로 시설되어 있다고 보았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나는 이 세상에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으로서 그런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환자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은 것이 정신장애이다. 약물과 상담으로 비뚤어진 상태로 굳어진 것을 풀려고 노력하는데 힘이 든다.

내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은 고(故) 병고(丙古) 고익진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전에는 불교신자라고는 생각했지만 배우자를 타종교인으로 만나면 얼마든지 타종교인도 될 수 있는 정도였다.

아함경 보며 세상이치 탐구

경전은 정신치로서...환자치료에 적용

승보살화라는 불교공부모임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 모임에 가입하여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선생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함·반야·법华的 삼부경 속에 체계적으로 시설되어 있다고 보았다.



문제를 부처님은 현장에서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계신다. 오늘날 경험되고 싶지 않은 정신치료가 누가 그렇게 잘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인사

중양승가대 △학생계장 이복우 △교무부장 김영만 △총무주임 김용원 △법인주임 박길현 △기획주임 김창룡 △총동문회 사무국장 정세남(조계종 교육원연수국장)

알림

△무료마을문고 개장=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은 복3관 2층에 무료 마을문고를 개장했다. 이용시간은 월~토요일 2전 10시부터 오후 5시. 토요일은 2전 12시까지다. (02)282-1100 △무로구인·구직 알선=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공영애)은 2로로 구인·구직자를 알선한

다. 건축이용직, 일당잡부, 기술자, 현장보조, 식당과출부, 가정파출부, 일당제 또는 시간제 근무 희망자를 모집중이다. (02)458-1664 △이선숙씨(前 불교TV 마케팅 부차장)는 5일 강서구 외발산동에 카페 온에어(ON AIR)를 개업했다. (02)661-7778

강좌

△직장인을 위한 교리=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은 6월 3일부터 3개월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직장인을 위한 불교교리강좌를 연다. (02)732-1206 △금강경 강좌=불교대교육원은 25일부터 2개월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무비스님의

금강경강좌를 실시한다.

수강료는 2만5천원. (053)253-7063

모집

△유미경특강=문사수법회 김태영법사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견지불교사 3층 견지관에서 유미경 특강을 한다. (02)722-7160 △출판경리=민족사(사장 윤창화)는 출판경리를 구한다. 출판경리 유경험자면 가능하다. (02)732-2403 △쌍계사승가대학=쌍계사승가대학(학장 통광)은 사비과 신입생, 사집과 사교과 편입생을 모집한다. 자격은 조계종 승려로 입학금 및 방부비는 없다. (0595)83-1906

△어린이바둑교실=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어린이 바둑교실을 운영한다.

일문반과 중급반으로 나눠 지도한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은 무료 및 감면혜택이 있다. (02)852-0525 △영물만일회 지회=전국영물만일회는 5월말까지 전국 지회를 모집한다. 정도불교운동에 관심이 있고, 사찰이나 포교당 등 일정한 공간을 갖고 있는 불자면 가능하다. (02)732-1215

△한글·수화교실=대구 자비외전회는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오후 3시 한글교실을 연다. 또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는 수화교실을 운영한다. (053)253-2655

△불교문화센터 23기 강좌=불교문화센터가 2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반야심경, 법화경 신해품, 불화그리기, 위빠사나, 유아교실, 어린이글짓기 등의 강좌가 오는 6월 1일~8월31일까지 3개월간 개설. (02)703-0108 △원효불교대=원효불교대학(학장 종각)은 중급반 신입생을 모집한다. 매주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주간반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에 야간반을 운영한다. 수시입학가능. (053)563-9154

△이인아씨(이태형 불교TV 본부장 차남)는 16일 KBS신관에서 이수정양과 화족을 밝혔다.

마음을 다스리는 큰스님 27인의 가르침

물 속의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큰스님 27인의 가르침 물 속의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 법산스님



이 시대 지혜의 등불을 밝힌 큰스님들과 석학들 27인이 진리의 전당인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 설법하신 주옥같은 법문들. 어려운 시대 지혜의 등불을 밝혀 용맹정진의 의지로 새로운 삶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마음 깊이 염원하는 선지식들의 간곡한 글이다.

“물 속의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웃는다. 진리는 바로 그대안에 있다. 그대 자신은 이것을 알지 못만채 이 숲에서 저 숲으로 허새 없이 헤매고 있다. 여기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진리를 보라...” -법정스님 법문 중 '인도 시인 카비르의詩'

역원이 법산스님 (동국대학교 정각원장) (02)260-3016

Grid of 27 portraits of Buddhist monks and scholars, each with a name and title. Includes names like 복원큰스님, 원담큰스님, 서암큰스님, 원운큰스님, 법정큰스님, 청화큰스님, 관음큰스님, 도문큰스님, 덕암큰스님, 법산큰스님, 도원큰스님, 박성배교수, 틱낫한큰스님, 광덕큰스님, 무진장큰스님, 정일큰스님, 고경근박사, 인환큰스님, 고은선생님, 송석구 총장, 서용큰스님, 송산큰스님, 일터큰스님, 운제큰스님, 월주큰스님, 고산큰스님, 柳田聖山 교수

* 사진은 책의 목차에 따른 배열입니다

매일경제신문사 권 100-728서울 중구 필동 1가 51번지 TEL 2626-427, 2626-442 FAX 271-0463